PO, 공급과잉 불구 믿는 구석은?

미국, 계절적 수요주기 따라 변동 … 아시아 및 유럽 수요 증가전망

미국의 PO(Propylene Oxide) 생산기업들이 저코스트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불황 회복에 따른 막대한 신증설 생산능력의 대두로 혼란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2002년에는 Polyurethane 산업의 수요강세로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Huntsman에 따르면, PO 시장은 경기회복을 비롯해 특히 Polyurethane 산업의 성장세로 견고한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Lyondell Chemical도 미국의 Polyurethane 시장이 침체기반을 벗어던지고 2003년 상반기에 큰 성장을 기록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신증설 생산능력이 쇄도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현재 수요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Shell 및 BASF는 이미 싱가폴의 PO 플랜트에 25만톤을 추가했으며 Sumitomo Chemical은 일본 Ciba의 20만톤 플랜트를 2003년 완공할 계획이다.

Lyondell 또한 2003년 하반기에 PO/SM 28만5000톤 플랜트를 건설 및 가동할 예정이어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PO의 잉여물량이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Dow Chemical은 PO의 공급량이 상당해질 것이나 2003-04년 미국 및 세계경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면 18개월 안에 3개 플랜트를 가동하고도 별다른 영향이 없으나 정상적인 시나리오상으로는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과잉의 위협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대부분의 생산기업들은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PG(Propylene Glycol)의 계절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미국에서 PO 유도물질의 수요강세가 지속되고 부진했던 아시아 및 유럽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6/19>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